

조선 후기 새로운 예술 발달

시조와 사설시조

1. 시조

양반들이 즐기던 문학이다.

선비들의 충성심과 자연관을 나타낸다.

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랴
깊은 시골 어리석은 이 이렇다 어떠하랴
하물며 자연을 즐기는 고질병 고쳐 무엇하랴

이황, '도산십이곡'

2. 사설시조

- 보다 자유로운 형식으로 **서민들의 감정을 솔직하게** 드러냈다.
- 남녀 간의 사랑이나 현실 사회에 대한 **비판** 등을 담고 있다.

여러 사람들이여 동난져 사오. 저 장수야.
네 물건 그 무엇이라 외치느냐, 사자.
밖은 단단하고 안은 물렁하며 두 눈은 위로 솟아
하늘을 향하고 앞뒤로 기는 작은 발 여덟 개
큰 발 두 개 푸른 장이 아스스속하는 동난져 사오.
장수야 하 거북하게 말하지 말고 게져이라 하려므나.



<최초의 한글 시조집 청구명언>

'1728년 가객 김천택이 개인 문집에 실려 있거나 구전으로만 전하던 가곡의 노랫말 580수를 필사해 악곡을 중심으로 시대별, 인물별로 엮은 책이다. 임금, 사대부, 기녀, 중인, 무명씨 등 다양한 사람들이 즐겨 불렀던 노랫말들이 한글로 실려 있다.

1. 한글 소설

- 대부분 지은이가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.
- 글을 모르는 일반 **서민들에게도 인기가 많았다.**



2. 대표적인 한글 소설

- <홍길동전>, <춘향전>, <심청전>, <흥부전>, <장화홍련전> 등

허균의<홍길동전>의 내용

- 양반 중심의 신분제와 ***적서차별** ***탐관오리** 비판.
- 최초의 한글 소설로 당시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식을 보여주었다.
- 서민들의 사회의식**을 발전시켰다.

- 적서차별(본 부인에게서 난 자식과 첩에게서 난 자식(서자, 얼자) 차별)
- 탐관오리(貪탐하다 탐, 官높은 벼슬, 관, 汚더러울 오, 吏낮은 관리 리)
→ 백성의 재물을 탐하고 깨끗하지 못한 관리

3. 서민 문학이 서민들에게 사랑받았던 이유

- 당시의 **현실**을 **날카롭게 비판**하였기 때문이다.
- 서민들이 가진 **바람**을 표현하였기 때문이다.

판소리

1. 의미

- 하나의 이야기를 노래와 설명, 몸짓으로 표현하는 공연이다.

2. 특징

- **소리꾼**이 즉흥적으로 내용을 더하거나 뺄 수 있고, **고수**가 북을 치며 '얼씨구', '어이', '좋다' 등의 추임새를 넣는다.
- 관중도 함께 참여할 수 있었다.

3. 공연된 곳

-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주로 공연되었다.
- 농촌이나 장터에서 노래했고, 때로는 양반 부자들의 안뜰(마당)에서도 공연했다.

4. 판소리를 즐긴 사람들

- **조선 후기 서민들 사이에서 생겨나 서민들에게 큰 호응**을 얻었다.
- 광대라 불리는 하층 계급의 예능인들에 의하여 이어졌다.
- 시간이 지나면서 양반들에게도 많은 관심과 흥미를 끌었다.

5. 작품

원래 열두 마당이 있었으나 현재는 **춘향가**, **심청가**, **흥부가**, **적벽가**, **수궁가** 등 다섯 마당만이 전해지고 있다.

소리꾼

고수



조선 후기 미술: 사실적인 표현

풍속화

1. 의미

- 서민들의 생활 모습을 그린 그림

2. 특징

- 조선 후기에 그려진 풍속화는 주로 서민들의 생활을 재미있고 현실감 있게 표현하였다.

3. 풍속화를 대표하는 화가: 김홍도, 신윤복, 김득신

▶ 김홍도

- 원래 궁궐에 속한 화가이지만 추수, 밭갈이, 씨름 등 서민들의 모습을 정감 있게 표현한 풍속화를 남겼다.
- <서당도> : 아이들이 서당에 모여서 공부를 하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, 마을에 훈장님이 있어서 아이들에게 글공부를 가르쳐 주었음을 알 수 있다.



<씨름도>

▶ 신윤복

- 주로 양반 사회에 대한 풍자, 당시에 잘 사용하지 않는 여성들의 생활 등을 사실적으로 화려한 색의 그림을 그렸다.

<단오>

명절날 여인들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그렸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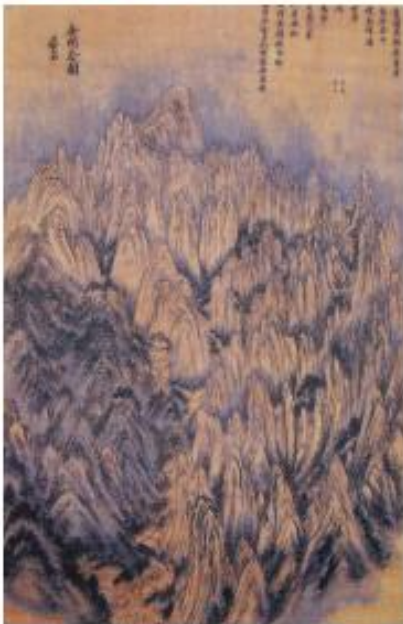


<미인도> : 조선 여인의 아름다움을 잘 표현한 작품



▶ 정선

-진경산수화: 우리나라 아름다운 강산을 실제로 보고 그리는 기법



<금강전도> 금강산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본 풍경



<인왕재색도> 인왕산의 실제 모습을 섬세하게 사실적으로 그렸다.



인왕재색도

민화: 조선 후기 서민들 사이에서 유행한 그림

- 행복하게 살고 싶은 서민들의 소망(평안, 장수, 효, 부부사랑)을 표현했다.
-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접하는 해와 달, 나무, 꽃, 동물, 물고기 등을 소재로 하였다.
- 벽에 걸거나 병풍으로 만들어 집 안을 장식하기도 하였다.

<작호도>



<백수백복도>



<화조도>



<문자도, 효>



조선 후기 유행한 도자기: 실용적 생활용품



청화백자

백자대호



옹기

- 조선 후기 서민들이 즐겨 쓰던 생활용기. 미세한 숨구멍이 있어 공기를 순환시켜 주기 때문에 음식을 오래 보관할 수 있다.
- 곡식, 고추장, 된장, 간장, 김치 등을 보관하는 항아리(독)이다.



조선 후기에는 서민의 경제력 향상으로
실용적, 사실적, 현실 비판적인 경향의
문화가 매우 발달하였다.